

제목: "미가와 단 지파"

말씀: 사사기 18장 14-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알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가와 단 지파의 일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힘을 믿고 신앙을 여기저기에 붙여서 편리한대로 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생활입니까?

- 1) 그들은 _____ 살았습니다.
- 2) 그들은 영적인 _____ 증에 걸렸습니다.
- 3) 그들은 멀리 보는 _____ 과 그 뜻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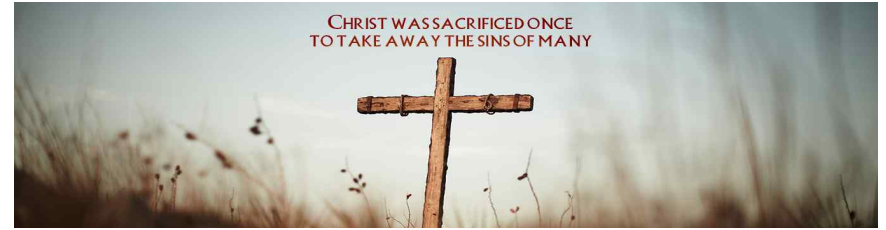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사기 18장 14-2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udges 18: 14-20 구약 393 페이지 President
- 말씀 "미가와 단 지파" 김성민 목사
Message A Total Failure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아프가니스탄 소식)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 손에 다시 넘어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또한 지난주에는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미국 군인들과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과 어린 여자 아이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슬람법을 강하게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움직일 때에 생겨날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빠져 나가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가?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한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아프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지도 모른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대로 자유가 허락되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활동을 했고 그들의 문화와 가지고 있던 종교를 의식하며 존중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법과 특별히 고산지방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콩 농사법을 알리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 그리고 전쟁 후에 고아들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고아원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갔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모든 일들이 쉽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활발하게 할 수는 없었고 또한 더욱 힘 있게 도울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본다.

선교와 도움의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겠으나 지금 나의 생각은 복음에 문이 열려 기회가 될 때에 어디든 힘 있게 일해야 하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언제 어떻게 또 다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4-5절)라고 하신다.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이는 계속 먹어 가는데 또 다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프가니스탄의 일로 가슴을 치면서 다시 생각해 본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믿음 생활에 전념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성도의 모습이다. 새로운 열심히 필요한 때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9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월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5.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